

조선시대 남성 분묘 출토 적삼 고찰

- 송효상(宋效商,1430-1490), 송희종(宋喜從,16C중후반)묘 출토 복식을 중심으로 -

권준희* · 권영숙**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Men's Single-layered Chŏgori in Joseon Dynasty

- Focused on SongHyosang(1430-1490), SongHeejong(the late 1500s) tombs -

Junhee Kweon* · Youngsuk Kweon**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Pusa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9. 2. 4, 심사(수정)일: 2009. 2. 23, 게재확정일: 2009. 3. 1)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single-layered Chŏgori excavated from SongHyoSang(宋效商, 1430-1490, SHS hereafter), SongHeeJong(宋喜從, the late 1500s, SHJ hereafter) tombs. There are 7 single-layered Chŏgoris for men. We focus on comparison of their design and sewing method.

1. Design: Investigating collar, Chŏgoris from SHS have MokpanGit and Chŏgoris from SHJ have KalGit. KalGit has been seen from SHJ to 17th, 18th and 19th centuries. After the late 1500s, there is no MokpanGit single-layered Chŏgori for men.

Side panel under arm has various shapes(triangle, trapezoid, triangle+trapezoid) in 15th century. After the late 1500s, It changes into no side panel. Two Chŏgoris with no side panel from SHJ reveals that the late 1500s is a period of transition.

2. Sewing method: First, researching lengthwise grainline of the fly, the left fly has lengthwise grainline outside in four, inside in three. The right fly has lengthwise grainline outside in just one, the others have lengthwise grainline inside. Compared with today's way,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ut in those times there isn't an established rule. This is true of side panel under arm. The sewing method are backstitch, running stitch, and hemming. Researching the construction method of seam, in putting two selvages together, open seam and plain seam are used. In putting selvage and bias, bias and bias together, flat felled seam and french seam are used.

This study shows that single-layered Chŏgori for men from 15C. to 16C. has changes of design such as collar(Git) and side panel under arm. But there is little change in sewing method.

Key words: single-layered Chŏgori(赤衫), MokpanGit(목판깃), KalGit(칼깃), side panel under arm(무)

I. 연구 목적 및 의의

송효상(宋效商), 송희종(宋喜從) 묘 출토 복식은 2004년 대전광역시 중구 목달동에서 납골당 설치를 위한 일가묘의 개장작업 중 발견되었다. 집안에 내려오는 기록을 참고하면 송효상은 여산송씨(礪山宋氏) 원윤공파(元尹公派) 11대손으로 어모장군행충무위부사직부군(禦侮將軍行忠武衛副仕直府君)을 지냈으며 생물연대는 1430-1490년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송효상의 손자인 송희종은 14대손으로 훈대부군자감판사부군(訓大夫軍資監判事府君)을 지냈으나 생물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남성분묘에서 출토된 복식은 저고리보다는 포가 그 중심을 이루며 고찰되어져 왔다. 이는 포가 남성복식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토 당시의 상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여성의 저고리가 함께 출토되고, 이에 출토된 저고리가 명확하게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금번 여산송씨 일가분묘의 출토복식은 염습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로 출토상황이 명확하고, 비록 수레지의로 여성용 저고리가 사용되었다하더라도 대부분 장식성이 부가되어 남성용과 구분될 수 있었다.

남성분묘의 출토복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습의(襲衣)의 가장 밑받침옷으로 대부분 홀저고리를 착용하고, 다량의 포류와 달리 기타 보공용으로 저고리가 몇 점 추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송효상과 송희종 분묘에서 출토된 저고리 중 남성의 저고리임이 확실한 습의(襲衣)로 착용했던 홀저고리를 포함하여 보공용 저고리 중 남성 저고리로 판단되는 홀저고리를 중심으로 조형성과 구성법을 고찰하고,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변화양상을 비교하고자 한

다. 이들 일가의 출토복식은 약100년 정도 격차를 두고 있어 한 집안에서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복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II. 조선시대 홀저고리의 명칭

조선시대 홀저고리를 뜻하는 용어로는 적삼(赤衫), 한삼(汗衫), 단삼(單衫), 삼아(衫兒) 등이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삼(衫)'의 어의(語義)를 조선시대 제작된 어휘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6세기의 『훈몽자회(訓蒙字會)』, 19세기의 『아학편(兒學編)』, 『왜어류해(倭語類解)』, 『자류주석(字類註釋)』에서는 '적삼'으로, 16세기의 『신증류합(新增類合)』에서는 '홀옷'으로 기록하고 있고, 특히 『자류주석(字類註釋)』에는 '저고리보다 작으면서 홀으로 된 옷(小襦單襦)'라 하여¹⁾ 위에서 언급된 용어들의 의미가 홀저고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휘집에 '적삼'으로 언해된 한자어를 살펴보면 '적삼(赤衫)' 이외에 '한삼(汗衫), 삼아(衫兒), 소삼(小衫), 삼(衫)' 등으로, 적삼은 이들 홀저고리류를 모두 포괄하는 한글명칭이었음도 확인된다.²⁾

그런데 이들 용어의 사용 시기는 표기된 서적의 편찬시기에 한정되므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모두 통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각각의 어휘가 실록에 기록된 예를 보면 <표 1>과 같다. 실록에 의하면 조선 초기에는 한삼, 적삼, 삼아, 단삼의 기록이 모두 보이지만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단삼(單衫)이다. 그런데 초기의 한삼, 적삼, 삼아, 단삼은 명확하게 그 형태상의 차이점이 파악되지 않고, 더욱이 적삼은 16세기 순천김씨(順天金氏)묘 출토 간찰에 의하면 '겹적삼'기록³⁾이 있고, 의인왕후·

<표 1>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시기별 赤衫, 汗衫, 單衫, 衫兒의 예

(단위:건)

	1400년대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汗衫	10	2			
赤衫	2	4			
衫兒	26		3		
單衫	1			2	1

인목왕후의 염습의대에는 적삼, 소적삼(小赤衫), 단적삼(單赤衫) 기록이 있어 홀뿐만 아니라 겹으로도 적삼을 만들었음이 파악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16세기 어휘집에서 기본적으로 '삼'을 홑옷으로 기록하고 있던 것과 배치되는 점이다. 그러나 겹적삼의 기록이 홀저고리라는 적삼의 기본 의미를 배제하고 적삼이 겹으로만 제작된 것이 아니라 홑과 겹 모두 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파악된 조선시대 문헌기록 중 유일하게 겹적삼기록이 확인되지만, 공식적인 역사서라기보다는 일반문서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겹적삼이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별히 적삼을 겹으로 하였을 경우 '겹'이라는 접두어를 붙인 것이고 '적삼'이라고만 할 경우에는 홀저고리를 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8세기, 19세기의 문집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순암집(順菴集)』⁴⁾에 의하면 소단삼(小單衫)에 대하여 속칭 적삼(赤衫)이라 하였고, 또한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⁵⁾에서는 한삼(汗衫)을 지금의 친의(襯衣)인 단삼(單衫)이라고 하여 적삼과 한삼이 단삼으로 통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규경(李圭景, 1788-?)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복재봉변증설(衣服裁縫辨證設)⁶⁾에서 유(襦)를 홑으로 할 경우 적삼이라 하고, 복식재량변증설(服食裁量辨證設)⁷⁾에서 남자복식을 논하며 적삼의 소요량은 11척으로 저고리의 13척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여자복식에서는 단삼을 4척이라 하여 여자 저고리의 5척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삼의 한자어 표기는 18세기 이후까지 단삼과 같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규경(李圭景, 1788-?)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복식재량변증설⁸⁾에서 남자복식의 한삼은 3척3촌이라 하여 적삼의 옷감소요량과 비교할 때 한건(汗巾)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러한 사실은 18세기 후반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서 삼(衫)에는 수(袖)를 가하는데 이는 소위 한삼이고 이 한건이 길고 넓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 기록⁹⁾에서도 한삼이 한건을 의미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유원(李裕

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¹⁰⁾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앞에서 비천한 사람이 감히 손을 내놓을 수 없어 한삼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근래에 폐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19세기에 이르면 삼의 소매에 가하였던 한삼조차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같은 시기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더 이상 세속에서 홀저고리로 칭해지지 않는 한삼이 습의(襲衣)의 하나로 지속되는 점은 아마 앞서 편찬된 다른 예서의 기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예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한삼은 조선 전기까지는 적삼, 단삼, 삼아와 같이 홀저고리를 칭하는 의복명칭으로 확인되지만 후대에는 소매끝에 붙은 한건의 의미만으로 해석되고, 19세기에는 이조차 사라지며, 현재까지 지속되는 예복이나 무복(舞服)에서 소매에 부가되는 긴 천의 의미로만 남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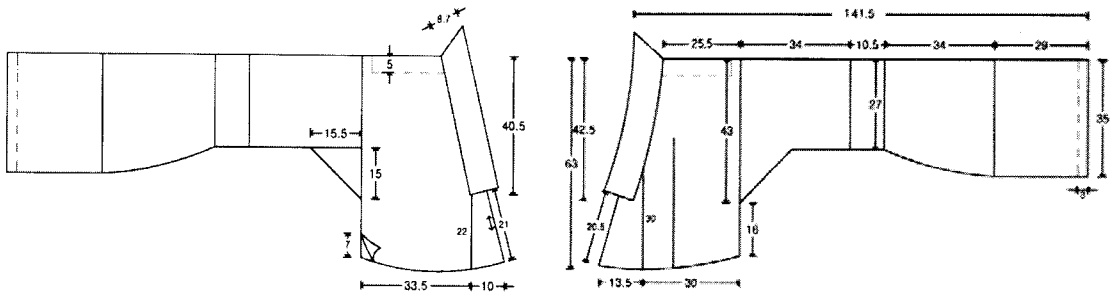
따라서 전후반기 모두 홀저고리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로는 적삼 혹은 단삼이라 할 수 있고, 전후기에 걸쳐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용어는 적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홀저고리를 적삼이라 통칭하고자 한다.

Ⅲ. 송효상(1430-1490), 송희종(16C중후반)묘 출토 적삼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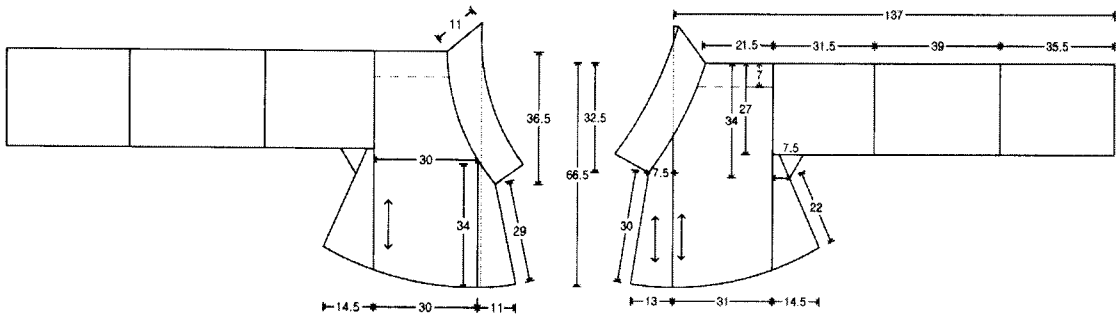
송효상(1430-1490추정) 묘에서 출토된 저고리는 습용 1점, 보공용 2점으로 총 3점인데 모두 홀저고리라는 공통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송희종(16C중-후) 묘에서 출토된 저고리는 습용 1점, 소렴용 1점, 보공용 5점으로 모두 7점인데 이 중 홀저고리는 습용 1점, 보공용 3점으로 총 4점이다. 송효상 묘 출토 적삼 3점과 송희종 묘 출토 적삼 4점의 도식화와 치수를 제시하면 <그림 1>-<그림 7>과 같다.

Ⅳ. 조형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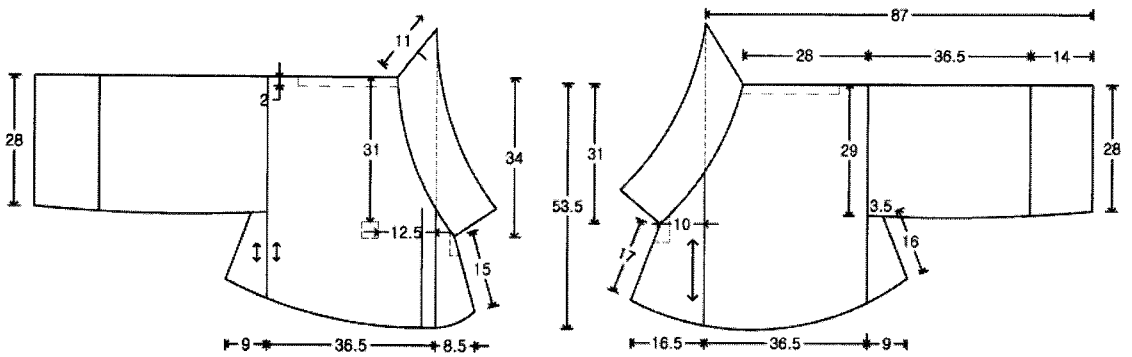
송효상, 송희종 묘 출토 적삼의 조형성을 비교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남자의 적삼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시대 분묘를 일람하면 <표 2>와 같다. 이



<그림 1> 송효상 슝 적삼



<그림 2> 송효상 보공 적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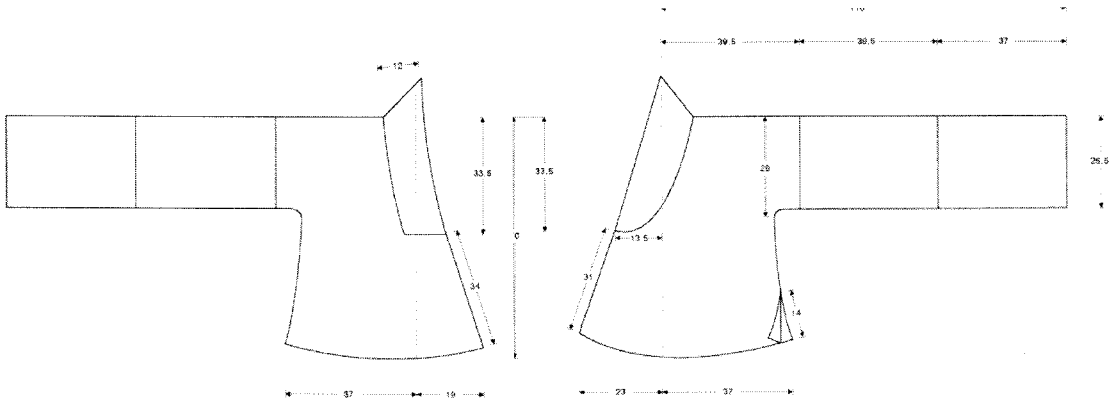


<그림 3> 송효상 보공 적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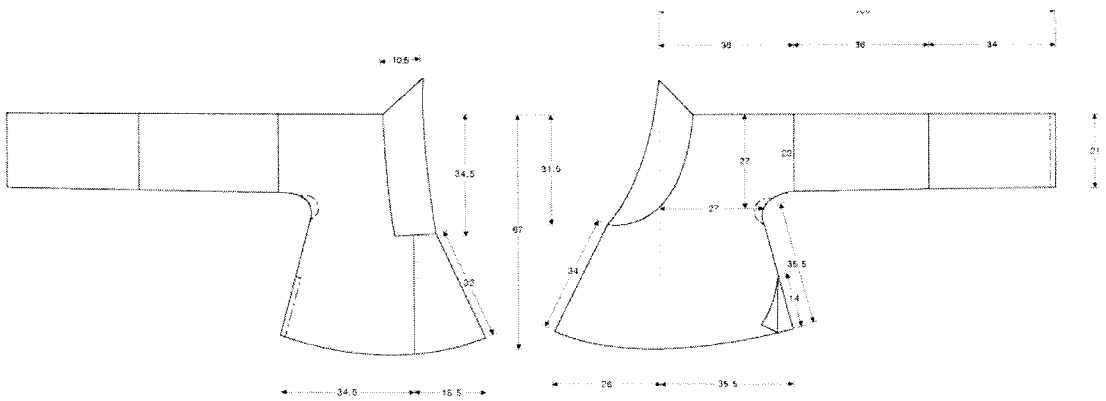
에 깃, 무와 트임, 뒷길이, 한삼의 유무 등에 따른 조형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 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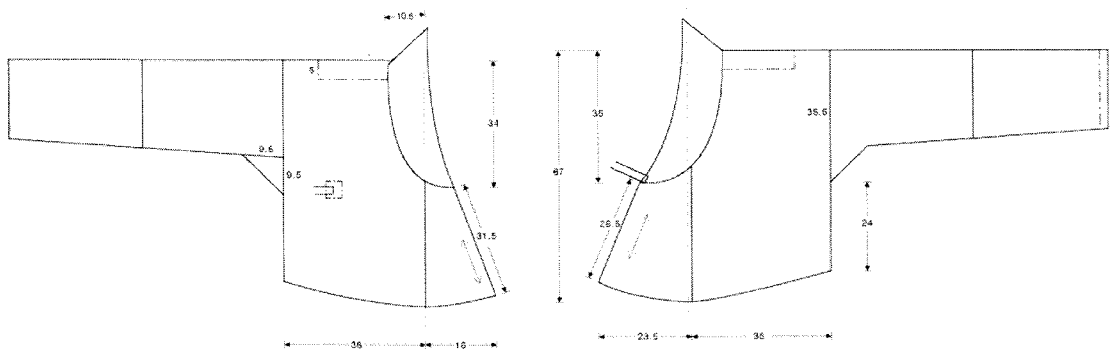
송효상묘 출토 적삼 깃은 모두 목판깃으로 다만 내어달린 정도의 차이가 보일 뿐, 걸깃과 안깃의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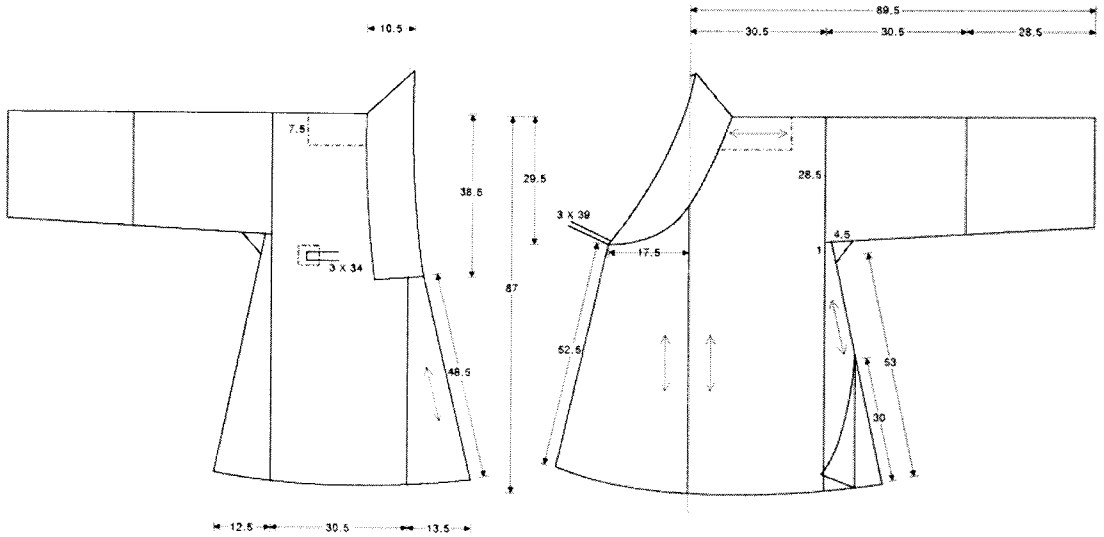
<그림 4> 송회종 습 적삼



<그림 5> 송회종 보공 적삼1



<그림 6> 송회종 보공 적삼2



〈그림 7〉 송희종 보공 적삼3

양도 동일하다. 이러한 점은 손자인 송희종의 묘에서 출토된 적삼 4점이 길깃과 안깃의 조합을 보면 둘 다 칼깃이 1점, 칼깃(겉)과 목판깃(안)의 조합이 3점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지금까지 가장 먼저 보이는 칼깃저고리는 정응두(丁應斗, 1508-1572) 합장묘 출토 저고리인데, 겉깃과 안깃이 모두 칼깃이고 겹저고리, 솜저고리 형태¹¹⁾로 전해지고 있다. 정응두는 송희종과 거의 동시대인으로 볼 수 있는데, 송희종 묘 출토 칼깃저고리는 습의(襲衣)로서 직접 착용한 채 출토되었고 겉깃, 안깃의 조합이 칼깃과 칼깃의 조합과 더불어 칼깃과 목판깃의 조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며, 무의 처리도 다양성을 띤다.

또한 적삼에서의 칼깃은 송희종 묘에서 출토된 것이 가장 이른 것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출토복식 중 적삼을 보면 송희종 묘 출토 칼깃 적삼을 제외하면 15세기 이후 16세기 이응태(李應台, 1534-1586) 묘 출토복식¹²⁾에 이르기까지 모두 목판깃의 적삼이다. 그런데 송희종 묘 출토 적삼을 선두로 이후 17세기 18세기에 이어 19세기 홍의준(洪義俊, 1761-1841) 묘 출토 적삼까지¹³⁾ 모두 칼깃 하나만 보인다. 그리고 이연응(李沈應, 1818-1879)묘 출토 적삼¹⁴⁾에서 보여

지 듯 19세기에 이르면 현재의 등그레 깃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안깃의 경우 송희종 묘 출토 적삼에서는 목판깃일 때 3점 모두 완전히 들어 달려 있다. 15세기 송효상 묘 출토 적삼은 물론 송희종 외 16세기 출토 적삼 모두에서 안깃이 목판깃인 경우 내어달리는 경향을 보이고, 이후 17,18세기의 칼깃 적삼에서도 안깃은 내어달린 목판깃의 형태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 무와 트임

송효상묘 출토 적삼의 무¹⁵⁾를 보면, 삼각소매무, 삼각무(액)+사다리꼴무, 사다리꼴무가 각각 1점씩 출토되었는데 삼각소매무가 사용된 습용 한삼의 경우 왼쪽 삼각소매무는 앞소매와 연결 재단하여 뒤로 넘겼고 오른쪽 삼각소매무는 뒷소매와 연결 재단하여 앞으로 넘겼다. 그런데 송효상과 동 시기 혹은 1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분묘에서 출토된 한삼이나 적삼의 예를 보면 무의 형태에서 대부분 삼각소매무나 삼각무(액) 사용이 주로 이루어지고, 삼각무(액)+사다리꼴무나 사다리꼴무의 단독사용도 소수만이

조선시대 남성 분묘 출토 직삼 고찰

〈표 2-1〉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직삼

출토	용도	윗폭	화장	뒷길이	겉깃	안깃	깃나비	무	옆트임	소재	출처
上院寺 木彫文殊童磁坐象		67	94	77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8	삼각무(옆)	30.5	명주	①
李季胤(1431-1489) 부인 昌原崔氏 합장		68	74.5+파 손	45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넓은 깃)	삼각무(액)	○	모시	②
宋效商(1430-1490)	습	68	144 (80+64)	64	목판깃 (5/9내어달림)	목판깃 (4.5/9내어달림)	9	삼각소매무	7	무명/명주	③
	보공1	72	137.5	66.5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11	삼각무(액)+ 사다리꼴무		삼베	
	보공2	80	87	53.5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12	사다리꼴무		모시	
金欽祖(1461-1528)		60	125.5	71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19	삼각소매무	12	마포/저포	④
		66	131.7	72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18.5	삼각소매무	16.5	면	
		63	130.5	63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18	삼각무(액)	12	마포/저포	
		68	150	64.5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17.5	삼각무(액)	16.5	면	
鄭溫(1481-1538)		68.5	91.5	52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좁은 깃)	삼각소매무	○	무명	⑤
		68	85	63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좁은 깃)	삼각소매무	○	베	
李彦忠(1524-1582)		66	70.5	53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11.5	사다리꼴무		모시	⑥
		63	70	56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10.8	한쪽무		모시	
襄天祚(1532-?)		64	71	63	목판깃(내어달림)	목판깃(4/5들여달림)	10	×	9	무명	⑦
沈秀濤(1534-1589)	습	68	83	61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12	한쪽무		저포	⑧
	보공	98	126	58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3.3	삼각소매무		주	
李應台(156-1586)	습 60	74	160	59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16	삼각소매무	7	저마/세모시 (깃,소매)	⑨
	습 59	70	136.5	57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18	삼각소매무 (섧없음)	8	마/면 (깃,소매)	
	습 61	65	79	43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4/12.5내 어)	13	삼각소매무		저마	
	보공 47	66	133	58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17	삼각소매무 (섧없음)		저마/명주 (깃,소매)	
	보공3 5	70	135	57	목판깃 (내어달림)	목판깃 (내어달림)	18	삼각소매무 (섧없음)		삼베/면(깃, 소매)	
	보공4 1	70	50.5+?	46	?	?	?	삼각소매무	트임	저마/명주 (깃,소,섧)	
宋喜從(16C후기)	습	64	116	69	칼깃	목판깃 (들여달림)	12	無	14	명주	⑩
	보공 1	54.6	106	67	칼깃	목판깃 (들여달림)	10.5	無	14	무명	
	보공 2	72	106	66	칼깃	칼깃	10.5	삼각소매무	8	무명	
	보공3	64.5	89.5	90	칼깃	목판깃 (들여달림)	10.5	삼각무(액)+ 사다리꼴무	29	삼베	

〈표 2-2〉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적삼

출토	용도	뒷폭	화장	뒷길이	칼깃	안깃	깃나비	푸	옆트임	소재	출처
金緯 (17C초기)		56	73	70	칼깃			삼각무(확인)	14	삼베	⑩
		?	?	58	칼깃			無	16	삼베	
傳 朴將軍(17C초기)		59	114	53	칼깃						
		39	66	52	칼깃				8		
金獲(1572-1633)	습 41	62	121	67	?(파손)	?(파손)	10.5	無(거의 직선)	10	주	⑪
鄭良佑(1574-1647), 鄭泰齊(1612-1669)		약58	약100	59	칼깃	목판깃 (내어달림)		無(직선)		베	⑫
		약66	약115	55	칼깃	목판깃 (내어달림)		無(약간 사선)		베/명주	
金汝溫(1596-1665)	습	58	119	56	칼깃	목판깃 (내어달림)	12	無(약간 사선)	10	주	⑬
洪禹協(1655-1691)	습?	58	110	54	칼깃	목판깃 (내어달림)	10	無(거의 직선)	○	명주	⑭
南五星(1643-1712)	습	59	121	57	칼깃	목판깃 (내어달림)	14	無(직선)	11	주	⑮
義原君(1661-1722)	습	59	88	59	칼깃	?		無(직선)	13	주	⑯
	습	58	103	65	칼깃	목판깃 (내어달림)	14	無(직선)	12	주	
洪義俊(1761-1841)	습	66	112	72	칼깃	목판깃 (내어달림)	?	無(약간사선)	20?	주	⑰
李沈應(1818-1879)	습	79	139.5	75	등그레깃	목판깃 (내어달림)	12	無(약간사선)		공단	⑱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송효상 묘 출토 적삼에서는 무형태의 경향성은 찾을 수 없으나 당시 적삼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각소매무의 경우는 옆트임을 7cm 주고 있다.

송회종 묘 출토 적삼의 무를 보면 무가 없는 경우가 2점, 삼각무(액)+사다리꼴무가 1점, 삼각 소매무가 1점인데 길이 차이는 있으나 모두 옆트임이 있다. 삼각소매무의 경우 왼쪽은 앞소매와 연결재단하고, 오른쪽은 뒷소매와 연결재단한 점은 송효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였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점은 송회종 묘 출토 적삼에서 4점 중 무가 없는 경우가 2점이라는 것이다. 16세기 출토 적삼 중 무가 없는 경우는 16세기 전반의 강릉김씨(江陵金氏, 1520전후)¹⁶⁾, 정온(鄭溫, 1481-1538) 묘 출토 적삼인데 3cm 내외의 좁은 목판깃 저고리이다. 남성용 칼깃 저고리에서 무가 없는 경우는 송효상 묘 출토의 적삼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이후 17세기 출토의 남성용 적삼은 대부분 무가 없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 조선시대 남성용 적삼에서 무의 형태는 깃형

태와 관련성이 커서 목판깃에서는 삼각소매무 혹은 삼각소매무와 동일한 형태의 삼각무(액)이 일반적이고, 칼깃에서는 무가 없는 형식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고찰된다. 그런데 송효상묘 출토 적삼은 목판깃에 삼각무(액)+사다리꼴무, 사다리꼴무의 다양한 조합이 보이며, 송회종 묘 출토 적삼은 목판깃에서 칼깃으로의 전환점에서 칼깃이면서 삼각무(액)+사다리꼴무, 삼각 소매무의 조합이 보인다는 특징을 지닌다.

3. 뒷길이

송효상, 송회종 묘 출토 적삼은 총 7점 중 5점의 뒷길이는 64cm-69cm, 1점이 53.5cm, 그리고 다른 하나는 90cm이다. 저고리의 길이는 묘주의 신체 사이즈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출토된 조선시대 남자 적삼의 뒷길이를 살펴보면 짧게는 43cm에서 50cm, 60cm, 70cm 대에 골고루 분포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출토복식에서 송회종 묘 출토 적삼에서와 같은 90cm은 찾아볼 수 없으나, 저고리의 길이를 제

의하면 깃과 무의 형태에서 특별히 다른 짧은 적삼과 구별되는 바를 찾을 수는 없다. 당시 긴 길이의 적삼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예로 판단된다.

4. 한삼의 유무

총 7점의 적삼 중 송효상 묘 출토 적삼 중 2점은 수구부분 일부를 다른 부분과 옷감을 달리하였고, 화장도 각각 144(80+64)cm, 147(62.5+74.5)cm으로 87cm-116cm인 다른 5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매 끝에 다른 천을 대어 화장을 상대적으로 길게 한 경우는 송효상 묘 출토 저고리 이외에도 김홍조(1461-1528), 이응태(1556-1586), 정양우(1574-1647) 및 정태제(1612-1669), 홍의준(1761-1841) 묘 출토 저고리까지 꾸준히 보여진다. 이는 18세기 후반 이덕무의 『靑莊館全書』에 기록된 한건이 길고 넓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던 한삼이고, 이유원(1814-1888)의 『임하필기』서 근래에 폐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19세기말에 이르면 삼의 소매에 가하였던 한삼조차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던 것임을 앞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송희종 묘와 다른 분묘 출토 적삼 중에는 다른 천으로 한삼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화장이 100cm 이상 긴 경우가 많아 적삼 소매를 다소 길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한삼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V. 구성법 비교

1. 쇄과 무, 어깨바대의 식서방향

총 7점의 적삼 중 겹쇠는 4점이 바깥쪽으로 안쇠

은 3점이 길쪽으로 식서를 두고 있으며, 안쇠는 1점만 길쪽으로 식서를 두고 나머지 6점은 바깥쪽으로 식서를 두고 있어 현재 겹쇠는 길쪽으로 안쇠는 바깥쪽으로 식서를 두는 봉제법과 비교해 볼 때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현재 겹쇠선이 길쪽으로 들어 달리므로 길의 어순올과 만나는 쇄의 길쪽 부분을 식서로 두는 점과 당시 쇄선이 거의 앞중심선과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순올일 경우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겹쇠, 안쇠 모두 바깥쪽으로 식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식서처리방법에 일정한 법칙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다리꼴무가 있는 3점의 경우도 2점은 바깥쪽으로, 1점은 길쪽으로 식서를 두고 있고, 어깨바대의 경우는 7점 중 5점은 가로방향으로, 2점은 세로방향으로 식서를 두고 있어 일정한 법칙성이 없는 것은 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2. 솔기처리

솔기처리시의 바느질법을 보면 온당침과 홉질, 감침질이 주로 사용하였는데, 식서와 식서가 만날 경우에는 가름솔과 넉솔을 모두 사용하였고, 식서와 어순올 혹은 어순올과 어순올이 만날 경우에는 곱솔과 통솔을 사용하였다. 곱솔은 두 장을 온당침 혹은 홉질로 연결한 후 시접을 한쪽으로 말아 감침질하여 솔기를 가늘면서 통통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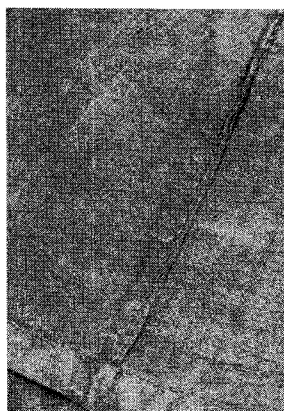
따라서 일반적으로 식서와 식서가 만나게 되는 등 솔기와 진동솔기의 경우, 그리고 삼각소매무로 처리하여 앞뒷길의 식서 부분이 그대로 옆솔기를 형성할 경우에는 가름솔과 넉솔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표 3〉 송효상, 송희종 묘 출토 적삼의 쇄, 무, 바대 식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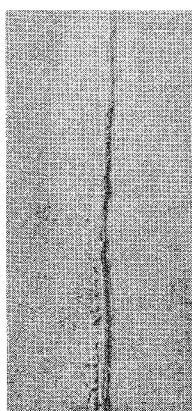
구분	구분	겹쇠	안쇠	무(사다리꼴옆무)	어깨바대
송효상	습	바깥쪽	바깥쪽	○	세로방향
	보공1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	가로방향
	보공2	길쪽	길쪽	길쪽	세로방향
송희종	습	바깥쪽	바깥쪽	○	가로방향
	보공1	길쪽	바깥쪽	○	가로방향
	보공2	바깥쪽	바깥쪽	○	가로방향
	보공3	길쪽	바깥쪽	바깥쪽	가로방향

〈표 4〉 송효상, 송희종 묘 출토 적삼의 술기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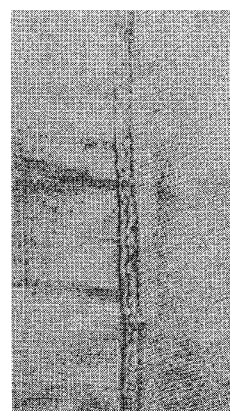
구분	등술기	옆술기 (걸섶/안섶)	무술기	옆술기	진동술기	배래	
송효상	습	가름술	곱술(길쪽)	곱술(길쪽)	가름술	넉술(길쪽)	통술(뒤쪽)
	보공1	넉술(왼쪽)	곱술(길쪽)	곱술(길쪽)	꼬집어 박기(L), 온당침(R)	넉술(길쪽)	곱술[앞쪽(L), 뒤쪽(R)]
	보공2	가름술	가름술	가름술	곱술(뒤쪽)	넉술(길쪽)	곱술(뒤쪽)
송희종	습	넉술(오른쪽)	넉술(길쪽)	넉술(길쪽)	통술(뒤쪽)	넉술(길쪽)	통술(뒤쪽)
	보공1	가름술	가름술 /곱술(길쪽)	넉술(길쪽)	곱술(뒤쪽)	가름술	곱술(뒤쪽)
	보공2	가름술	가름술 /넉술(길쪽)	넉술(길쪽)	가름술	넉술(길쪽)	곱술(뒤쪽)
	보공3	넉술(왼쪽)	불규칙 (위는가름술, 아래는옆쪽)/곱 술(길쪽)	곱술(길쪽)	곱술(앞쪽)	가름술	곱술(앞쪽)



〈그림 8〉 송희종 습 적삼 안섶술기(안)



〈그림 9〉 송희종보공적삼2 안섶술기(안)



〈그림 10〉 송희종 보공 적삼2 걸섶술기(안)

옆술기는 경우에 따라 곱술, 가름술, 넉술이 고루 사용되었고, 배래와 옆술기의 경우는 곱술과 통술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술기 바느질법 중 식서와 어순율이 만날 때 흔히 곱술 혹은 통술 처리하지만 본 분묘 출토 적삼에서는 곱술과 통술 이외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의 바느질법이 사용되었다. 첫 번째〈그림 8〉, 송희종 습 적삼은 길과 만나는 옆술기가 어순율이므로 먼저 옆술기를 옆으로 한번 쥐고 길과 반당침로

고정 후 넉술(길쪽)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술기선에 옆술기의 울퉁퉁 부분이 드러나 있다. 두 번째〈그림 9〉, 송희종 보공 2 적삼은 안섶이 길과 어순율로 만나므로 먼저 ① 안섶 술기를 두번 쥐어 온당침한 후 ② 온당침 선을 따라 길과 붙이고 길 시접쪽에서 온당침하였는데 안섶선의 시접은 안섶쪽의 시접이 두 겹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길쪽으로 넉 술이 된다. 세 번째〈그림 10〉 역시 송희종 보공 2와 송효상 보공2에서 나타나는데 걸섶이 길과 어순율로 만나므로 온

당침으로 길과 섶을 연결한 후 섶 솔기를 섶쪽으로 말아 감치고 길의 시점은 길쪽으로 꺾어 가름솔로 처리한 경우이다.

솔기의 방향처리를 보면 등솔기에서 넉솔일 경우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나타나고, 겹섶과 안섶이 길과 만나는 섶솔기와 무와 길이 만나는 무 솔기는 일반적으로 길쪽으로 시점을 꺾었으며, 옆솔기는 대체적으로 뒤로 하였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른 경우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토 유물은 현재 저고리 바느질과 달리 시점을 작게 두고 특히 적삼의 경우는 더욱 시점이 작기 때문에 이 시점의 방향이 크게 의미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송효상대와 송희종대의 시대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은 파악되지 않는다.

3. 부분 바느질

① 어깨 바대 : 모두 직사각형의 일자(一字) 모양으로 바대를 대었는데 앞 뒤 바대의 끝부분을 한번 꺾어 길에 감침질하여 고정시켰으나 송희종 보공3 적삼을 제외하면 바대의 좌우는 고정하지 않았다.

② 고름 : 7점 모두 고름이 있거나 흔적이 남아 있다.

먼저 송효상 묘 출토 목판깃 적삼의 왼쪽 고름은 3점 모두 길깃 밑변의 중앙정도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오른쪽 고름의 경우 습용 적삼은 안깃 밑변의 왼쪽 구석에 오도록 하였으며, 보공2 적삼은 오른쪽 길에 고름바대와 고름의 흔적만이 남아 있다.

다음 송희종 묘 출토 복식 중 습 적삼은 왼쪽 고름은 너비 4cm, 길이 95cm 로, 아래를 골로 하고 위를 봉제선이 오도록 한 겹고름인데 길깃 끝에 흰색 면사로 고정되어 있던 흔적이 있다. 오른쪽 길에 고름이나 고름바대의 흔적이 없어 명확하지 않지만 남아있는 왼쪽 고름의 길이가 긴 것으로 미루어 아이들의 돌띠처럼 왼쪽 고름을 돌려 묶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보공용 3점은 한쪽은 식서 그대로 사용하고 한쪽은 말아 감친 후 반으로 접어 3cm정도의 너비로 고름을 사용하였는데, 골선의 위치는 양쪽 모두 아래로 오게 하거나(보공 1), 왼쪽은 아래, 오른쪽은

위로 오게 하여(보공2, 보공3) 일정하지는 않다. 그리고 오른쪽 길에 부착된 고름은 모두 고름바대를 사용하였다.

③ 안단 처리 : 송효상묘 출토 적삼 3점의 안단처리를 보면 섶선단을 먼저 제물단(0.5cm)으로 꺾어 감치고 이후 밑단을 같은 방법으로 꺾어 감친 경우(습), 섶선단을 먼저 제물단으로 하였지만 이후 밑단은 말아 감침한 경우(보공1), 둘다 말아 감침하였는데 밑단을 먼저 말아 감치고 이후 섶선단을 말아 감친 경우(보공2)로 세가지 모두 다른 방법을 취하였다.

그런데 송희종 묘 출토 적삼에서는 섶선이나 밑단, 옆트임선에서의 단처리리를 보면 말아 감침 경우는 없고 모두 제물단 혹은 덧단을 1cm내외의 너비로 꺾어 감쳤는데, 섶선, 옆트임선단을 먼저 단처리하고 이후 밑단선을 꺾어 올렸다. 섶선단의 경우 섶선이 끝은 올릴 때에는 제물단으로 하거나(습), 식서인 경우 단처리를 하지 않고 식서 그대로 사용(보공2)한 반면, 어순 올릴 경우(보공1, 보공3)에는 덧단을 대었다.

그리고 7점 중 트임이 있는 경우가 5점인데 송효상 묘 습용 적삼의 트임은 별다른 안단처리를 하지 않고 식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송희종 묘 출토 적삼의 트임처리를 보면 제물단 1점(습), 덧단 2점(보공1, 보공3), 길의 식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공2)가 1점이다. 습용 적삼은 옆무가 없이 길의 옆선을 사선처리하였지만 옆트임부분은 도련에서 수직으로 올려 사선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처리에서 제물단이 가능하였다.



〈그림 11〉 송희종, 보공 적삼1, 겨드랑이바대 안쪽

④ 한삼 : 송효상 묘 출토 습용, 보공 적삼1의 한삼부분은 모두 수구보다 한삼의 크기가 더 커서 소매와 한삼 연결시 주름을 잡았는데, 습용 한삼은 한삼의 배래를 소매 배래에 맞추고 나머지는 배래 끝

에서 앞뒤로 주름을 잡아 안쪽으로 넣은 형태이다. 그리고 보공1은 한삼 배래의 여유분을 오른쪽은 앞쪽, 왼쪽은 뒤쪽으로 꺾어 바깥쪽으로 한삼의 배래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또한 보공1의 경우 소매의 수구와 한삼을 연결할 때 둘 다 식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밖으로 시접이 드러나도록 시침질되어 있다.

⑤ 겨드랑이 바대 : 송회종 보공 적삼1은 겨드랑이에 독특한 입술 모양의 바대를 대었는데 길이 7.8cm, 좌우폭대 3.3cm의 입술 모양으로 만들어 겨드랑이 솔기선에 감침질로 고정하였다.

VI. 결론

본 연구는 송효상(1430-1490 추정) 묘에서 출토 적삼 3점(습용 1점, 보공용 2점), 송회종(16C 중-후) 묘에서 출토 적삼 4점(습용 1점, 보공용 3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남성용 적삼의 조형성과 구성법을 살펴 보았다. 고찰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조형성

① 깃 - 송효상묘 출토 적삼의 깃은 모두 목판깃이고 손자인 송회종의 묘에서 출토된 적삼 4점은 모두 칼깃이다. 적삼에서의 깃은 송회종 묘 출토 적삼을 선두로 이후 17세기, 18세기에 이어 19세기까지 모두 칼깃 하나만 보인다. 이에 송회종 묘 출토 적삼의 칼깃은 남자 적삼의 깃모양이 15세기 목판깃에서 16세기 중반 이후 칼깃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무 - 송효상묘 출토 적삼은 삼각소매무, 삼각무(액)+사다리꼴옆무, 사다리꼴무가 각각 1점씩 출토되었는데, 송회종 묘 출토 적삼의 무는 무가 없는 경우가 2점, 삼각무(액)+사다리꼴무가 1점, 삼각소매무가 1점이다. 조선시대 남성용 적삼에서 무의 형태는 깃형태와 관련성이 커서 목판깃에서는 삼각소매무 혹은 삼각소매무와 동일한 형태의 삼각무(액)이 일반적이고, 칼깃에서는 무가 없는 형식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고찰되는데 송효상묘 출토 적삼은 목판깃에 삼각무(액)+사다리꼴무, 사다리꼴무의 다양한

조합이 보이며, 송회종 묘 출토 적삼은 목판깃에서 칼깃으로의 전환점에서 칼깃이면서 삼각무(액)+사다리꼴무, 삼각소매무의 조합이 보인다는 특징을 지닌다.

③ 뒷길이에서는 시대흐름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한삼은 송효상묘 출토 적삼은 소매끝에 다른 천을 덧댄 한삼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송회종 묘 출토 적삼에서는 한삼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삼은 19세기말 완전히 적삼에서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송회종 묘 출토 적삼에서 보이듯 화장을 100cm 이상으로 하여 소매를 길게 함으로써 한삼의 역할을 어느정도 대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구성법

1) 쇄과 무, 어깨바대의 식서방향

총 7점의 적삼 중 겹섶은 4점이 바깥쪽으로 3점이 길쪽으로 식서를 두고 있으며, 안섶은 1점만 길쪽으로 식서를 두고 나머지 6점은 바깥쪽으로 식서를 두고 있어, 현재 겹섶은 길쪽으로 안섶은 바깥쪽으로 식서를 두는 봉제법과 비교해 볼 때는 차이점이 발견되지만, 당시 식서처리방법에 일정한 법칙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어깨바대는 7점 중 5점은 가로방향으로, 2점은 세로방향으로 식서를 두고 있어 일반적으로 가로방향으로 식서를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솔기처리

솔기처리시의 바느질법을 보면 온당침과 홈질, 감침질이 주로 사용하였는데, 식서와 식서가 만날 경우에는 가름솔과 넉솔을 모두 사용하였고, 식서와 어순을 혹은 어순올과 어순올이 만날 경우에는 옛쌈솔과 통솔을 사용하였다.

3) 부분 바느질

고름은 7점 모두 고름이 있거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주로 홀고름을 사용했으나 겹고름도 보이며 반접은 홀고름 사용시 골선의 방향에서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겹고름은 아이들의 돌띠처럼 왼쪽 고름을 돌려 묶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송희종 묘 출토 유물에서만 발견된다.

안단 처리는 송효상 묘 출토 적삼 3점의 경우 제물단, 말아 감침이 보이고, 송희종 묘 출토 적삼에서는 말아 감침 경우는 없고 모두 제물단 혹은 덧단 처리하였다. 그리고 트임이 있는 경우, 송효상 묘 습용 적삼은 식서 그대로 사용하였고, 송희종 묘 출토 적삼은 식서 이외에 제물단 혹은 덧단처리한 것을 볼 수 있다. 단처리 방향은 먼저 섰선, 트임선을 처리하고 밑단을 처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고찰결과 15세기에서 16세기의 시대 흐름에 따른 남자 적삼은 깃과 무의 형태에 의한 조형성 변화는 뚜렷하나 구성법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송희종, 송효상 묘 출토 적삼과 더불어 15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다른 분묘 출토 적삼을 함께 분석하여 적삼의 조형성, 구성법에 대한 흐름을 잡아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다른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 유물의 경우 보고서에 따라 구성법에 대한 서술방식과 서술정도가 크게 달라 조형성은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했지만, 구성법은 송희종, 송효상 묘 출토 적삼과 비교가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이후 발굴 성과와 연구보고서의 축적에 따른 후속연구를 기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김은정 (2006). 어휘집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복식명칭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1.
- 2) 김은정 (2006). 앞의 논문, p. 121.
- 3) 조항범 (1998). 《註解》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p. 182.
- 4) 안정복. 願菴集. 권14 雜著 追錄 “小單衫. 俗稱赤衫. 用紬”
- 5) 성해응. 研經齋全集. 권47 “汗衫者 今之襯衣單衫也 王叔彖觀子云漢王與項羽戰 汗透中單 改名汗衫 或曰汗衣”
- 6)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衣服裁縫辨證設 “襦 短衫 俗名赤古里 單者曰赤衫也”
- 7)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服食裁量辨證設 “大昌衣二十八尺 冬衣十八尺 內貢十八尺 赤古里十三尺 內貢十二尺 袴十四尺 內貢十四尺 赤衫十一尺 單袴十三尺 行纏二尺 襪表裏三尺二寸 套下衣裏二尺八寸 汗衫三尺三寸 揮項表裏四尺 此男子之服著 而常人則所著短少

故不入此數 酌量區別可也 已上合一百五十尺 赤古里五尺 內貢四尺 單衫四尺 袴表裏三十尺 單袴十三尺 廣單袴十七尺 裳二十三尺 無竹裳九尺 腰帶表裏三尺六寸 襪表裏三尺 合一百二十七尺六寸 此女子之服著 而常人則所著短少 故不入此數 酌量區別”

- 8) 주7)참고
- 9)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27 사소절(상) 사전1 “衫口(衫口加袖. 俗謂汗衫也)之汗巾長濶者 養其懶惰 不便執役 雖除之可也 大抵袖裾冗長 大妨執事.....衫有巾不可長也”
- 10) 이유원. 林下筆記. 권29 春明逸史 汗衫之制 “尊敬之地 卑賤者不敢出手 故每用衣袖覆之 是汗衫之所由作 而衫亦不得太露也 余於燕京見之 朝士公服俱有手甲 其於迎駕時 以甲覆之 過則即捲 以此推之 敬謹之義在於斯矣 近則廢而不行 後生輩 幾不知為何物 古昔登上座者 用紅色汗衫云 而無見於載記也”
- 11) 박성실, 고부자 (1991). 고양 능곡 무원 출토 羅州丁氏 月軒公派 출토 유물 소고. 韓國服飾, 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p. 152-153.
- 12) ① 권영숙, 백영미 (2006).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명주홀저고리의 보존처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6)
② 박성실 (1993). 廣州郡 突馬面 朽栗里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小考. 韓國服飾, 1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③ 권영숙 외 (2007).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 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대전광역시, 부산대학교 한국 전통복식연구소.
④ 영주시 (1988).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⑤ 박성실 (1998). 坡州 金陵里 出土 慶州鄭氏 유물 소고. 韓國服飾, 1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⑥ 박성실 (2002). 서울시 중계동 출토 星州李氏 大司憲 彥忠(1524-1582)墓 복식 고찰. 韓國服飾, 2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⑦ 건국대학교 박물관 (2007). 충북 영동 성산 배씨 문중 기증 16·17세기 출토복식.
⑧ 경기도박물관 (2004). 심수륜묘 출토 복식.
⑨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13) ⑩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2 복식·자수편
⑪ 경기도박물관 (2007). 김화 합장묘 출토복식.
⑫ 고부자, 박성실 (1990). 驪州 出土 東萊鄭氏(思庵公派)遺物 小考. 韓國服飾 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⑬ 이은주 외 (2005). 길짐승홍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⑭ 김명숙 (1999). 洪禹協 遺衣를 통해 본 朝鮮時代 17世紀 服飾과 織物. 朝鮮時代 服飾研究. 충북대학교 박물관.
⑮ 국립민속박물관 (2004). 남오성 묘 출토복식.
⑯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⑰ 박성실 (1994). 天安出土 豊山洪氏 遺物小考. 韓國

服飾, 1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14) 경기도박물관 (2001). *앞의 책*.
- 15) 무는 길과 소매 연결시 겨드랑이나 길의 옆에 다른 천을 덧댄 경우를 말함인데 그 형태에 따라 삼각무, 사다리꼴무 등으로 칭할 수 있다. 다만 삼각무의 경우 소매와 연결재단하여 겨드랑이에 댄 경우에는 삼각소매무라고 하였고, 그렇지 않고 별도의 사각형 천으로 대각선을 접어 삼각형 겨드랑이 무를 댄 경우에는 삼각형 옆무와의 차별을 위해 삼각무(액)이라고 칭하였다.
- 16) 고부자 (2007). 大田 出土 江陵 金氏(女, 朝鮮 前期) 遺物. *韓國服飾*, 2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